

Free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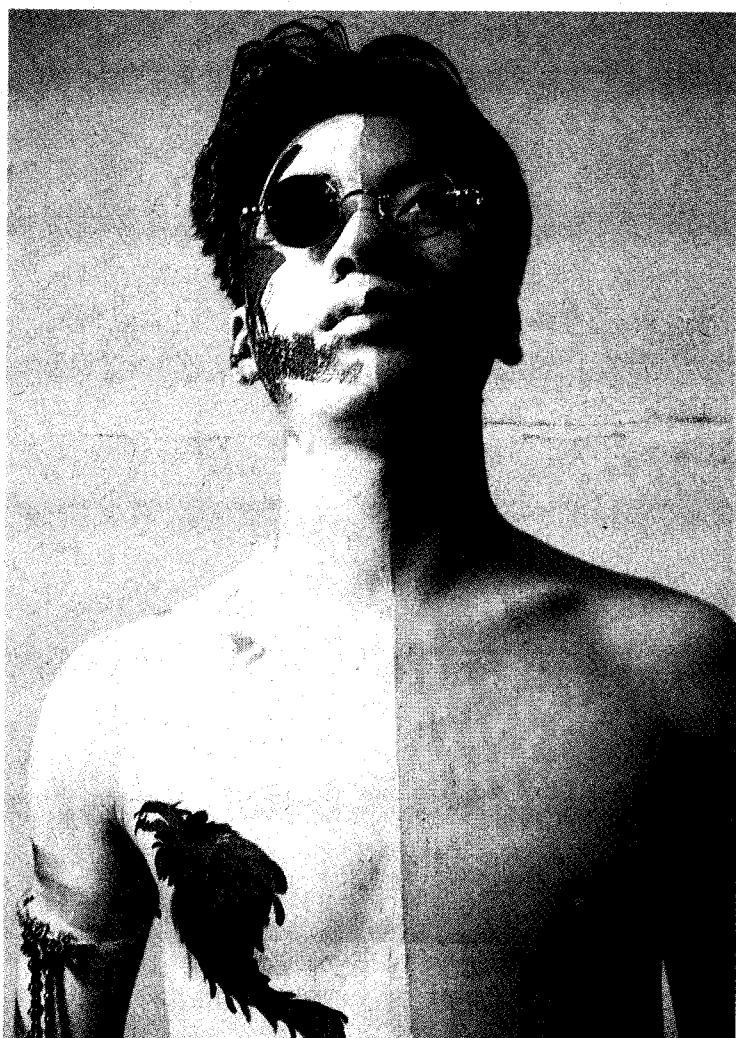
대학주보

테마신문

1997년 5월 12일 월요일

13

생기를 잃은 채 무게만 더해가는 이성도
 넘침을 주체 못해 난무하는 감성도 아니다
 끝없는 실험 정신과 자유에의 추구
 이것이 우리 문화이다



혼돈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그 혼돈의 진앙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이 자칫 우리를 절망케 할 지도 모른다. 언론에 비취진 대학은 여전히 친북세력의 온실 구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소비문화를 살찌우는 현란함도 지니고 있다.

80년대 식의 이성 과잉도 90년대 초 이후의 어지러운 감성의 바람도 이제는 한풀 꺾인 탓인지 무엇을 논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바로 이런 틈을 비집고 많은 이들이 뻗는 한마디. '대학의 문화는 죽었다'

그렇다. 혼돈 그 자체에 의미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요즘을 본다면 그야말로 난마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학의 새로운 문화 만들기는 요원하기만 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발랄하기 그지 없는 후배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용기가 없는 예비역들이나 '아직도' 세미나를 하자고 붙잡는 선배들을 이해할수 없는 후배들이 공존하는 캠퍼스가 요즘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과 대학인의 변모과정 속에서 본다면 지금의 대학이 겪고 있는 혼란은 단순한 '죽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80년대의 사회와 문화가 지금의 것과 다르듯이 대학의 문화도 그러한 의미선상에서 다뤄져야 하지는 않는 것인지...

대학의 문화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끊임없는 실험의 장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고 싶다. 그렇다면 극도로 추상화 된 이론 속에서 허우적 거릴 것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조차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주변으로 내몰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 속에서 죽어가는 대학의 문화를 복원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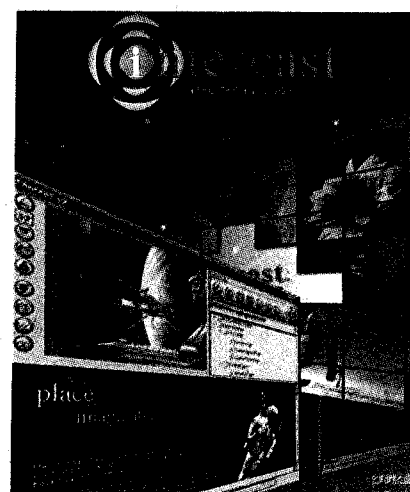
Free Style는 이론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대학인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면 파편화와 분산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구성원들의 자기성찰과 또 다른 모색이 진행중인 한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뻗을 수 밖에 없다.

이성에서 감성으로의 전이와 단절...감성으로의 지나친 포만감과 구토증... 이것만이 대학의 현실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성과 감성의 경계속에서 야누스적인 성찰과 새로운 시도를 실험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자기규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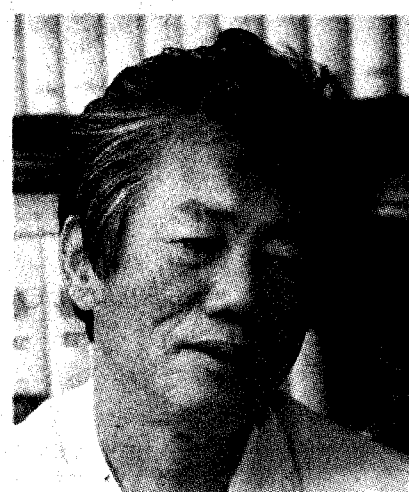
이제 독자들은 Free Style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대학 만들기를 실험하는 사람들과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기 바란다.



이제 몸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뭉툭한 코는 세워올리고 보기 싫은 광대뼈는 깎아 없애자. 뼈를 깎는 아픔이라도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아낸다. 소비문화가 만들어 내는 여러 군상들...아름다운 몸가꾸기 속에 숨어있는 '욕망'과 '조작' 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만나 보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개인적이고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실험의 몸짓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 만들기도 그런 몸짓의 하나다.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들을 만나보자.



통일은 지상의 과제. 요즘처럼 북녘 동포의 아픔을 체험해 본적이 있을까. 3천원짜리 점심을 굶고 1만원 짜리 저녁을 사먹었다는 친구가 그리 밍지만은 않다.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평생을 통일 운동에 헌신해 온 백기완 선생의 서릿발 같은 목소리를 들어보자.

Free style